

민원서류 발급, 불편했던 플러그인 없앴다

행안부,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완료 교육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 유지

직장인 김지수(34)씨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을 때마다 설치를 요구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때문이다. 더구나 웹브라우저가 강제로 종료되거나 먹통이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꼈던 플러그인(액티브 X, EXE 실행파일 등) 설치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등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15개 기관과 공동 추진해 온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플러그인 제거 대상 웹사이트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종합 포털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대표 홈페이지, 경찰청의 경찰민원 포털, 관세청의 인터넷 통관포털 '유니패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와 임신육아종합포털 등이다.

월 평균 1470만명이 이용하는 정부24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전체 발급량의 93%를 차지하는 21종의 민원에 대하여 플러그인을 우선 제거했다.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플러그인을 없앨 계획이다.

이번 플러그인 제거로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방식과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방식을 함께 제공한다. 다만 교육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사도 교육청과 연계 문제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지한다.

이용자가 브라우저 인증서를 선택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저장소에 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어 인증서 휴대에 따른

❓ 플러그인 (Plug-In)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액티브 X, 실행파일(EXE) 등 PC에 별도로 설치하는 프로그램.

불편함과 분실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웹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신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상, 엣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을 사용해야 한다.

구형 웹 브라우저 사용자의 경우 기존처럼 플러그인을 설치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대체 기술이 없는 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민 275명을 대상으로 이번 플러그인 제거 웹사이트를 체험하게 한 결과, 86.2%(237명)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초기에 플러그인을 제거해 시범운영해온 기관에서는 서비

스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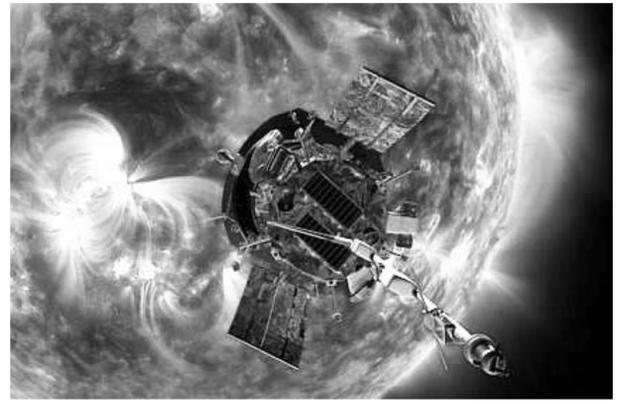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웹사이트 가운데 플러그인이 있는 웹사이트는 2417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64%에 해당하는 1544개에 대해 올해 말까지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엔 779곳에서 추가로 제거를 마쳐 내년 말까지 2323개(96%) 공공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없앨 방침이다.

정부는 22개 웹사이트 외의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플러그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웹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우선 제거함에 따라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까지 대부분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태양 대장정' 파커탐사선 1년 만에 세번째 근접비행 시도

지난해 8월 12일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PSP)이 1년간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내달 1일 태양에 세 번째 근접비행을 시도한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파커호는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이다.

태양 궤도를 24차례 돌며 태양 속으로 점점 더 다가가 자료를 수집하는 임무를 띤 파커호는 7년의 대장정 중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지만 두 차례의 근접비행을 통해 이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태양물리학 부문 책임자인 니키 폭스는 파커 탐사선 발사 1년에 맞춰 낸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두 차례의 근접 비행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의 두 배에 달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인 파커는 4종의 과학 장비를 이용해 태양이 뿜어내는 전하를 가진 입자인 태양풍과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운 외곽 대기인 코로나 등

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태양풍은 위성과 우주비행사에게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으며 대규모 정전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NASA는 파커 탐사선 발사 1주년을 맞아 파커호가 첫 번째 태양 근접 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6-10일에 광역이미저 WISPR로 촬영한 비디오를 공개했다.

파커 탐사선은 이때 미국과 독일이 공동 제작한 헤리오스2호가 1976년에 세운 태양 최근접 기록(태양표면에서 4273만km)을 훌쩍 넘어 2500만km까지 접근한 직주였다.

파커호는 마지막에는 태양 표면에서 616만km까지 접근해 태양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파커라는 탐사선 명칭은 1958년 태양풍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밝혀낸 우주물리학자 유진 파커(92) 박사에게서 따온 것으로, NASA가 우주선에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것은 파커호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제2의 페이커를 찾아라"

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결선 17일 시작

국내 최고 아마추어 게임 고수를 가리는 제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결선이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진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대통령배 KeG)는 지역 e스포츠 균형 발전, e스포츠 유망주 발굴과 아마추어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2007년 시작된 최초 전국 단위 정식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다.

올해 정식종목은 라이엇게임즈 '리그 오브레전드'(LoL), 펍지주식회사 '배틀

그라운드', 넥스 '카트라이더', 한빛소프트 '오디션'이다. 시범 종목은 슈퍼셀 '브롤스타즈', 넷마블 '모두의마블'(장애인 부문)이다.

지역 대표선수를 뽑는 지역 본선이 지난달 진행됐다. 지역본선은 정식 4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2000여명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다. 지역별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248명이 출전해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동통신3사,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도전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채팅+' 3사 연동 서비스

이동통신3사가 카카오톡이 선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문자메시지는 물론, 그룹채팅과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메신저 서비스 '채팅+(채팅플러스)'의 3사 연동 서비스를 지난 13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채팅플러스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채택한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휴대폰에 기본 탑재된 문자메시지 앱에서 그룹대화, 읽음확인, 대용량 파일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문자메시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통신3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채팅플러스에 대한 통신사간 연동과 서비스 가능 단말기간 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그동안 각 통신사 고객끼리만 이용할 수 있었던 채팅(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서비스를 통신사에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채팅플러스로 업그레이드했



다고 설명했다.

업그레이드된 채팅플러스는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끼리 이용할 수 있었던 RCS 기능을 통신3사가 연동함으로써 채팅플러스가 탑재된 단말기에서는 통신사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3사가 13일부터 제공하는 채팅플러스 서비스는 SMS(단문메시지), MMS(사진·영상 전송 가능 메시지) 기능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한글 최대 2700자, 영문

4000자까지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100명 그룹대화, 최대 100MB 크기의 대용량 파일도 전송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채팅플러스의 통신3사 연동을 계기로 모든 고객들이 통신사 경계를 넘어 더 나은 메신저 서비스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이 보내는 메시지도 개선된 방식으로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낮선 외국어 메뉴판도 사진 한 장이면 번역 '파파고' 번역 기능 대폭 향상

네이버는 인공지능(AI)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가 영어·중국어·한국어 3개 언어의 이미지 번역 기능을 대폭 향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파파고에 새로 적용된 이미지 번역 엔진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 문자 추출·인식 정확도를 이전보다 57% 높였다.

고도화된 이미지 번역 엔진을 먼저 적용한 일본어 번역은 지난해 동기 대비 이미지 번역 사용량이 3배가량 증가했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또 이미지 내 문자를 자동으로 검출해 번역하는 '전체 번역' 기능도 확대 적용했다. 이 기능은 사진 속 문자의 전체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진화될 예정이다.

한편, 파파고는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파파고 이미지 번역 기능을 사용해 본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해당 URL을 파파고 블로그에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김한영 기자 young@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